

지리 용어 사전 ●●●

『지리의 쓸모』를 읽다 궁금해지는 지리 용어를 모아서 소개하는 용어 사전. 궁금했던 지리 용어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

ㄱ	가도시화	03	ㄷ	다문화주의	05
	거점개발	03		도농복합도시	06
	경선	10		독과점	06
	고랭지 농업	03		동화주의	06
	고층습원	03		뜯다리 부두	06
	공정여행	03			
	관광 수지	04	ㄹ	리아스식 해안	06
	광역경제권	04			
	국토종합계획	04	ㅁ	방조제	07
	균형 개발	04		배산임수	07
	그루같이	04		배타적 경제수역	07
	기업형 슈퍼마켓	05		본류	07
	기후	05		본초자오선	07
				비자	08
ㄴ	남동임해공업지대	05			
	높새바람	05	ㅎ	사회간접자본	08
				서안 해양성 기후	08

	쇄빙유조선	08		지리정보	11
	수도권정비계획	08		지정학	12
	수에즈운하	09		지중해성 기후	12
	습지	09		직접 불이익	12
	심야전력	09			
			ㄸ	침엽수	12
○	열대도시	09			
	열대야	09	ㅍ	투영법	12
	열섬현상	10		트래블 버블	13
	열팽창	10			
	위선	10	ㅎ	팜파스	13
	위키백과	10		포스트 코로나	13
	유엔 세계관광기구	10		폭염	13
				핀 현상	13
ㄱ	자금률	11		표준시	14
	장소감	11			
	제국주의	11	ㅇ	해양성 기후	14
	지도 중첩	11		헤게모니	14
	지류	07		희토류	14



■ **가도시화**

假都市化

159쪽 ‘인구분포’ 편

도시 인구가 경제 성장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도시의 산업 기반이나 생활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현상.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납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가 촌락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점개발**

據點開發

202쪽 ‘지역갈등’ 편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자본과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개발합니다.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 **고랭지 농업**

高冷地農業

313쪽 ‘지구온난화’ 편

해발고도가 높은 고원이나 산지에서 서늘한 기온을 활용하여 감자, 메밀, 배추 등을 재배하는 농업. 우리나라에서는 태백 산지 주변의 고위 평탄면에 많이 발달했습니다.

■ **고층습원**

高層濕原

302쪽 ‘람사르 습지’ 편

습도가 높은 냉대의 저지대, 온대의 고산대에서 보이는 습지 형태. 죽은 이끼가 퇴적되는 과정에서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져서 이를 두고 ‘고층’이라고 표현합니다.

■ **공정여행**

公正旅行

222쪽 ‘관광산업’ 편

공정여행은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착한 여행’, ‘대안 여행’, ‘지속 가능한 여행’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행에서 비롯된 환경오염, 지역 공동체 파괴, 자원 낭비 등을 반성하는 취지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관광지가 있는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관광지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소규모 인원과 생태 보존을 중시하는 여행의 형태를 말합니다.

■ **관광 수지**
觀光收支
219쪽 ‘관광산업’ 편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관광 수입)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관광객으로 지출한 금액(관광 지출)의 차이. 관광 수입에서 관광 지출을 빼서 계산합니다. 관광 수지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관광 수지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광역경제권**
廣域經濟圈
247쪽 ‘균형발전’ 편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설정하는 지역 범위. 기존의 경제·산업권의 범위와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광역경제권을 사용했습니다. 부산·울산·경상남도의 메가시티, 대전·세종·충청남도·충청북도의 광역생활경제권 등 최근에는 다양한 광역경제권이 등장했습니다.

■ **국토종합계획**
國土綜合計劃
239쪽 ‘균형발전’ 편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을 말합니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제1~3차 계획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불리다가 제4차 계획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적용됩니다. 이름에서 ‘개발’이 빠진 이유는 국토를 개발하는 수단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이 강조된 것입니다.

■ **균형 개발**
均衡開發
243쪽 ‘균형발전’ 편

낙후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의 격차 감소를 추구하는 개발 방식. 균형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하며, 국가 성장의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낙후 지역의 실질 성장이 가능하므로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합니다.

■ **그루같이**
284쪽 ‘식량 문제’ 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농업 방식.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일 년 안에 두 가지 작물을 수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온다습한 계절에 성장하는 벼를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고, 가을에 보리를 심어 다음 해 늦봄까지 수확합니다.

<p>■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SSM) 274쪽 ‘유통망’ 편</p>	<p>대기업 유통회사 계열의 슈퍼마켓. 대형 마트보다는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규모가 큼니다. 기존 동네 슈퍼마켓에 비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행사 상품도 많아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도모 하는 정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p>
<p>■ 기후 氣候 29쪽 ‘위치’ 편</p>	<p>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현상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기상상태인 날씨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기후 특성을 최난월 평균, 최한월평균, 연평균 등으로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p>
<p>■ 남동임해공업지대 南東臨海工業地帶 240쪽 ‘균형발전’ 편</p>	<p>우리나라 동남부의 해안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시작 하여 울산·부산, 경상남도 창원·거제·통영,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여수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대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업 지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공업 지역이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국가 공업 발전의 주축입니다.</p>
<p>■ 뽕새바람 72쪽 ‘산맥’ 편</p>	<p>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지칭하는 순우리말 ‘뽕바람’과 동쪽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지칭하는 순우리말 ‘새바람’의 합성어로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부는 북동풍으로 뽕 현상에 의해 영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말합니다.</p>
<p>■ 다문화주의 多文化主義 193쪽 ‘다문화’ 편</p>	<p>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태도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성과 통합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p>

<p>■ 도농복합도시 都農複合市 155쪽 ‘도시 변화’ 편</p>	<p>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시(市)를 말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시(市)와 주변 군(郡)을 통합해 33개의 도농복합도시가 탄생했습니다.</p>
<p>■ 독과점 獨寡占 270쪽 ‘유통망’ 편</p>	<p>특정 분야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상태. 우리나라는 1981년 법률을 제정하여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나 전기처럼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공공 서비스 분야는 예외로 두기도 합니다.</p>
<p>■ 동화주의 同化主義 193쪽 ‘다문화’ 편</p>	<p>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태도로 이주민이 주류 문화에 적응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주민의 정착, 적응, 동화에 초점을 둡니다.</p>
<p>■ 뜯다리 부두 102쪽 ‘해안’ 편</p>	<p>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항만 시설. 부두가 물에 뜨도록 설치되어 있어 바닷물의 높이와 관계없이 배가 부두에 접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의 내항(內港)에는 일제강점기 때 설치된 뜯다리 부두 3기가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서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p>
<p>■ 리아스식 해안 rias式海 100쪽 ‘해안’ 편</p>	<p>하천의 침식으로 형성된 계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기면서 만들어진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이름은 에스파냐 북서부에서 섬이 많고 복잡한 해안선이 나타나는 해안 지역을 지칭하는 리아(ria)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는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교차하여,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이 나타납니다.</p>

<p>■ 방조제 防潮堤 284쪽 ‘식량 문제’</p>	<p>조수를 가로막아 갯벌을 매립하여 이용하거나, 호수를 만들어 용수 공급하려고 만듭니다.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수위 차이가 큰 서해에 많은데, 파도를 막는 방파제와는 다릅니다.</p>
<p>■ 배산임수 背山臨水 150쪽 ‘도시 변화’ 편</p>	<p>우리나라 선조들의 전통적 취락 입지 조건으로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위치를 말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명당으로 여기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등진 산이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마을 앞 하천으로부터 생활용수를 얻기 용이해 생활하기에 좋습니다.</p>
<p>■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經濟水域 46쪽 ‘영역’ 편</p>	<p>배척한다는 뜻의 밀칠 배(排), 다르다는 뜻의 다를 타(他)를 사용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 이외의 국가가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수역을 말합니다.</p>
<p>■ 본류·지류 本流·支流 302쪽 ‘람사르 습지’ 편</p>	<p>본류의 ‘본(本)’은 근본을 의미하여 강 혹은 하천의 물이 흘러 내려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줄기를 말합니다. 지류의 ‘지(支)’는 가르다는 뜻으로 본류에서 갈라진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지류는 본류로 모이고 본류에 모인 물들이 강의 어귀, 하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p>
<p>■ 본초자오선 本初子午線 25쪽 ‘위치’ 편</p>	<p>자오선은 경선과 같은 의미로, 본초자오선은 시간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선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경선을 말합니다.</p>

<p>■ 비자 Visa 218쪽 ‘관광산업’ 편</p>	<p>여행을 가는 국가의 입국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덕분입니다.</p>
<p>■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211쪽 ‘지역갈등’ 편</p>	<p>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공항, 도로, 항만, 상·하수도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p>
<p>■ 서안 해양성 기후 西岸海洋性氣候 69쪽 ‘산맥’ 편</p>	<p>온대 기후 중에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최난월 평균 기온 22℃ 미만인 기후를 말합니다.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온화하여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서부 및 북부 유럽, 북아메리카 북서 해안, 칠레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뉴질랜드 등은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p>
<p>■ 쇄빙유조선 碎氷油槽船 342쪽 ‘실크로드’ 편</p>	<p>이름 그대로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며 석유 등 자원을 운반하는 배를 말합니다. 북극해 지역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이러한 자원을 운송하려면 영하 45℃ 이하의 추운 조건에서도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독자적으로 항해가 가능해야 합니다.</p>
<p>■ 수도권정비계획 242쪽 ‘균형발전’ 편</p>	<p>수도권의 정비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여기서 수도권이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절한 배치 유도,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이 주요 과제입니다.</p>

<p>■ 수에즈운하 Suez運河 341쪽 '실크로드' 편</p>	<p>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이 경계인 이집트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곧바로 연결하는 통로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p>
<p>■ 습지 濕地 295쪽 '람사르 습지' 편</p>	<p>습기가 많은 땅을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는 땅으로 육지와 해양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갯벌이 바로 대표적인 습지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6%를 차지합니다. 습지 가운데 염생습지는 갯벌과 하천이 만나 소금기가 있는 습지를 의미합니다.</p>
<p>■ 심야전력 深夜電力 256쪽 '발전소' 편</p>	<p>주로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기수요가 적은 심야 시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9시)의 발전설비 이용률을 높이려고 도입된 개념.</p>
<p>■ 연담도시 聯擔都市 163쪽 '인구분포' 편</p>	<p>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가 연결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화로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광역도시권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연속된 시가지가 나타납니다.</p>
<p>■ 열대야 熱帶夜 112쪽 '최고기온' 편</p>	<p>밤(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최저 기온이 25℃ 이상으로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열섬 현상으로 열대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비교적 낮은 대관령 등지가 열대야 피서지로 주목 받기도 합니다.</p>

<p>■ 열섬 현상 Urban Heat Island(UHI) 114쪽 ‘최고기온’ 편</p>	<p>도시 중심부가 주변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현상. 기온 등온선이 섬의 등고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열섬(Heat Island) 현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포장 면적 증가, 공장·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공 열이 열섬 현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열섬 현상은 1년 내내 나타나고, 보통 여름보다 겨울에 낮보다 밤에 뚜렷합니다.</p>
<p>■ 열팽창 熱膨脹 312쪽 ‘지구온난화’ 편</p>	<p>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활발한 운동에너지로 인해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한 해양의 열팽창으로 바닷물의 부피가 커져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p>
<p>■ 위선·경선 緯線·經線 13쪽 ‘지도’ 편</p>	<p>지도나 가상의 지구본에 나타난 가로선과 세로선을 말해요. 이 위선과 경선을 통해 숫자로 좌표를 정하고 그 좌표를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공간 정보를 쉽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p>
<p>■ 위키백과 WiKipedia 20쪽 ‘지도’ 편</p>	<p>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을 말합니다. 집단 지성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상업적 광고가 없으며 방대한 정보량을 자랑하지만, 논쟁과 분쟁 토론이 상시 일어나며 악의적인 훼손이나 편집도 가능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나 리포트, 논문 등에 위키 백과의 자료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p>
<p>■ 유엔 세계관광기구 世界觀光機構,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216쪽 ‘관광산업’ 편</p>	<p>197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 관광 진흥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기가 목적입니다. 관광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회원국의 관광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이해의 증진과 국제협력을 도모합니다.</p>

<p>■ 자급률 自給率 284쪽 ‘식량 문제’ 편</p>	<p>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식량 <u>자급률</u>은 어떤 국가가 필요한 전체 식량 소비량 중에서 국내 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때 식량은 인간의 소비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u>곡물 자급률</u>은 어떤 국가가 필요한 전체 곡물 소비량 중에서 국내 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살펴보는 개념으로 이때 곡물은 인간의 소비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까지 포함합니다.</p>
<p>■ 장소감 Sense of Place 206쪽 ‘지역갈등’ 편</p>	<p>특정 ‘장소’에 대해 느끼는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을 말합니다.</p>
<p>■ 제국주의 帝國主義 60쪽 ‘행정구역’ 편</p>	<p>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하는 패권주의 정책.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 근대의 열강들이 여타 국가들을 침탈한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p>
<p>■ 지도 중첩 地圖重疊 11쪽 ‘지도’ 편</p>	<p>지형, 도로, 지가 등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한 지도 여러 장을 겹쳐 분석 대상 지역의 특성을 명확히 보이는 방법입니다.</p>
<p>■ 지리 정보 地理情報 11쪽 ‘지도’ 편</p>	<p>공간 및 지역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를 표현하는 공간 정보, 특성을 설명하는 속성 정보, 다른 지리 정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 정보 등으로 구성됩니다.</p>

<p>■ 지정학 地政學 48쪽 ‘영역’ 편</p>	<p>지리적 위치가 주변 국가와의 관계 혹은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지리적, 경제적, 인구학적, 역사적, 문화적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범위한 연구와 지식이 필요합니다.</p>
<p>■ 지중해성 기후 地中海性氣候 69쪽 ‘산맥’ 편</p>	<p>온대 기후 중에서 여름에 건조한 기후로, 여름 강수량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며, 겨울에는 전선대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지중해 연안,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중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아프리카 남단 등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p>
<p>■ 집적 불이익 集積不利益 166쪽 ‘인구분포’ 편</p>	<p>인구, 산업이 한 곳에 지나치게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말합니다. 반대로 인구와 산업이 모여 효율이 높아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은 ‘집적 이익’이라고 합니다.</p>
<p>■ 침엽수 針葉樹 314쪽 ‘지구온난화’ 편</p>	<p>침(針)은 바늘, 엽(葉)은 잎이라는 뜻으로 바늘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를 의미합니다. 뾰족한 바늘을 닮아있는데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잎의 표면적이 얇고 좁습니다. 한국에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의 고산지대에 분포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져 침엽수림의 분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p>
<p>■ 투영법 投影法 12쪽 ‘지도’ 편</p>	<p>구면인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낼 때 발생하는 위치, 형태, 면적, 방향 등의 다양한 왜곡을 지도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될 수 있는 한 줄이면서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p>

<p>■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 218쪽 '관광산업' 편</p>	<p>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이 우수하여 상대적으로 감염이 안전한 지역 간에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트래블 버블이 진행되면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되어 관광 진흥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p>
<p>■ 팜파스 Pampas 288쪽 '식량 문제' 편</p>	<p>초원을 의미하는 남아메리카 인디오 말로 750,000km² 면적에 다다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에 걸쳐 있는 대규모 평야를 말합니다. 팜파스는 세계적인 밀 생산지이자 소와 양을 방목하며 세계적인 육류 생산지로 유명합니다.</p>
<p>■ 포스트 코로나 Post Corona 215쪽 '관광산업' 편</p>	<p>포스트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나 상황을 말합니다.</p>
<p>■ 폭염 Extreme Heat 暴炎 115쪽 '최고기온' 편</p>	<p>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일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33℃를 넘으리라 예상하면 폭염주의보, 이틀 이상 35℃를 넘으리라 예상하면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2020년 5월부터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p>
<p>■ 핀 현상 Föhn現象 72쪽 '산맥' 편</p>	<p>산지를 넘은 바람이 하강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해지는 현상. 원래 핀(föhn or foehn)은 알프스산맥 북사면에서 하강하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현재는 세계 각지의 유사한 바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로키산맥 동사면의 치누크(Chinook), 크로아티아 아드리아 해안의 보라(Bora), 안데스산맥 동쪽 아르헨티나의 존다(Zonda), 우리나라 영서지역의 뽕새바람이 대표적인 핀 바람입니다.</p>

■ 표준시
標準時
24쪽 '위치' 편

한 나라 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평균 시각을 말합니다.

■ 해양성 기후
海洋性氣候
69쪽 '산맥' 편

근접한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후로 대륙성 기후에 비해 기온의 일 변화와 연변화가 적고 연교차가 작습니다. 연 최저기온이나 최고기온이 나타나는 시기가 늦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장애물이 없어 대륙에 비하여 풍속이 강합니다.

■ 헤게모니
Hegemonie
323쪽 '한반도 평화' 편

특정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이래로 이 용어는 '정치적 지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 희토류
稀土類
230쪽 '지하자원' 편

이름을 그대로 풀면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자연에서 희귀하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를 담고 있는 흙을 말합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LCD, LED,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과 미사일 제어장치, 전투기 등 군용 물자에도 두루 쓰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매장량만 편중되어 채굴이 어려워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